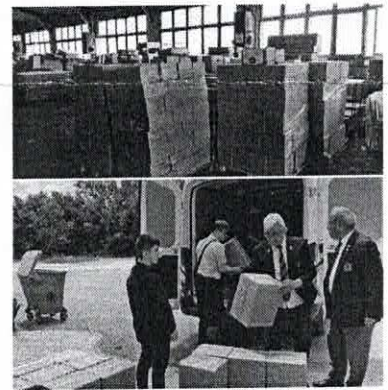


튀르키예 대지진 재난 구호활동에 관한 재정보고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7.8 강도의 대지진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보내드린 공문에 언급했던 대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웃 사랑의 헌금을 SEED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과 튀르키예 개신교 협의회(TEK)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지진으로 생존의 위협 가운데 처한 이재민들에게 생필품 중심의 구호활동을 진행했고 지금은 천막촌, 컨테이너,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학교 시설 등에 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찾아가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 두 지역에 쉼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재민 자녀들을 위한 구호활동들도 펼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개신교 협의회(TEK)에서는 재난 전담팀을 구성하여 여러 재난 지역들을 직접 방문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구호품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의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현지인들의 적개심과 오해들이 풀려 복음에 마음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TEK에 구호헌금 4만불을 전달했습니다.



전략적 지역에 쉼 센터 운영: 카라와 카*모누(지방도시)에서 장기적으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쉼 센터를 열고 이재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게 운영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자녀들에게 필요한 학용품 등을 준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 영어 강좌, 그림 그리기 강좌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쉼 센터가 이재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모누 지역의 쉼 센터에서는 한국 참전용사협회 간부들과 함께 구호활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구호품을 준비한 분들이 한국 사람들인 것을 알고 매우 고마와 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쉼센터를 위해서 9만불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앙카라 생모길교회는 2-5월까지 재난현장을 방문해서 이재민들에게 텐트, 담요, 생필품 등을 전달했고 3-6월까지 매월 2회 재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 사역에 2만 5천불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이재민들을 계속 기억해 주세요. 튀르키예는 대통령선거가 끝난 상황이라 이재민들을 향한 정부의 관심은 이전같지 않을 것이고 국제 사회의 관심 역시 이전같지 않습니다. 방학동안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은 9월에 대학이 개학하면 다른 거처를 찾아 옮겨야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거처에 살고 있는 이재민들도 임대비 일부를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텐트로 이주하거나 직장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텐트촌과 컨테이너로 옮기는 가운데 위생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강추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어떤 도움도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한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현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길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켜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드릴 것입니다. 현장의 이야기들은 다음 보고에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태호 선교사 드림

2023년 7월 13일

9-1 X